

『개혁주의와 과학철학』

최태연(2005), 서울, UCN

오유석 (백석대학교 기독교철학 연구교수)

본 저서는 기독교인이 과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문에서 저자 최교수는 “개혁신학이 현대과학을 무조건 배척하지도, 무조건 열광하지도 않으면서 과학을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신앙인에게 제공한다.” 고 주장한다. 최교수에 따르면, 과학의 일차적 목적은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 설정 하에서 과학은 그 내부적 목적, 즉 세계에 대한 지식 추구를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과학과 기독교 신앙 사이의 갈등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과학과 조화를 추구해야 하며 기독교 신앙과 과학과의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최교수는 구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과학관, 설계논증, 유신 진화론 및 유신론적 과학이론을 검토함으로써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과학관이 어떠한 것인지 모색하고 있으며, 6장부터는 현대 과학문명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가령 인공생명이나 사이버 문화 등)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듯 본 저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포괄적이다 보니, 저서 전체가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려면, 적어도 책 전체를 몇 개의 큰 주제로 나눈 후 세부 주제로 다시 나누어 논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본 저서의 8장은 과학기술 시대의 기독교윤리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데, 한 chapter에서 다루기에 너무 큰 주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이를

테면 최교수는 생명의료윤리와 관련하여 230-235페이지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무조건적 절대주의나 차등적 절대주의, 책임윤리의 입장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 저자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 얼마 전에 있었던 황우석 박사 사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화두를 던져 주었다. 우리는 배아복제를 완전히 금지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배아는 인간이 아니므로 복제해도 무방한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피조물인 인간이 어디까지 과학연구를 해도 좋은가? 오늘날 과학기술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 복제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과 과학의 조화를 아무리 외치더라도 결국 공허한 선언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교수 자신도 밝히고 있듯이, 본 저서는 기독교 신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본 저서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유신진화론 논쟁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통시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창조-진화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과학 일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밝힐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최교수가 4장과 5장의 유신진화론 및 유신론적 과학과 관련한 논의를 좀 더 다듬고 보충해서, 개혁주의적 과학이론의 틀을 마련한 후, 이를 바탕으로 배아복제 등의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엽적인 문제를 지적해 보면, 최교수는 3장에서 “설계논증에 대한 흠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설계논증은 최소한 인간의 제작물과 우주 사이의 유비추리에 의해 가능하며, 우주에 대한 경험적인 관찰로부터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별적인 감각 데이터에 대한 관찰과, “이 세상을 선한 창조주가 제작했다.” 는 가정 사이에는 엄청난

난 간격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설계논증은 개별적인 감각 경험을 통해 “밑에서 위로” 추론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 추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아니면 설계논증이 “밑에서 위로” 추론되었으나, 이러한 결론이 추론되는 데에는 단순히 감각 데이터의 축적 뿐 아니라, 일종의 “조명” 혹은 “은총” 이 요구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의문과 관련해서 최교수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